

봉행사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봉행하는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에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8.15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뜻 깊은 날이며, 온 겨레가 경축하는 날입니다. 71년 전 오늘, 우리 7천만 겨레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치면서 염원했던 세상은 억압이 없는 해방된 조국, 희망이 넘치는 부강번영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45년 8.15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져 남과 북이 갈라진 채 지내온 세월이 자그마치 71년입니다. 8.15는 우리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자 동시에 분단의 아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민족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현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만 명이 죽고 다치는 전쟁을 치러야했고, 그 이후로 남과 북은 줄곧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항상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포함한 국력의 소모는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 친지들과 떨어져서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만 하는 이산가족들의 사연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며, 큰 아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교 역시 분단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수한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분단으로 인해 1700년 유구한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되고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하루라도 빨리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존하고 상생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71주년 8.15를 계기로 남과 북이 단절에서 벗어나 대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1년 전, 우리 겨레 모두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듯이, 오늘날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아픔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업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정신으로 우리 불자들이 합심하여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에 통일정토를 구현하는데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에 함께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2016)년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 승